

병영도서관의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and Applying of Evaluation Indicators in Korea Military Libraries

송승섭(Sung-Seob Song)**

초 록

본 연구는 2007년 고안된 병영도서관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2008년 84개 병영도서관에 적용한 결과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로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병영도서관 서면평가결과와 10개 기관의 실사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계획, 재정, 서비스, 장서관리 등 8개 영역 28개 지표와 지표별 평가 척도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군별 특성이 다른 해군과 공군의 병영도서관을 육군 병영도서관과 분리하여 그룹핑할 것과, 보다 완전한 평가를 위하여 병영도서관 실태 조사 표준안을 만들어 군별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e developing course on evaluation indicators of military library which published in 2007, and applied them to 84 military libraries in 2008. By analyzing the results from applying, this study also tried to find more effective evaluation indicators which are available properly. Through the output analysis of documental evaluation and actual inspection, which performed by ten organizations, on military library, revised and completed 28 indexes of 8 classes - plan, finance, service, collection management etc. and some of their evaluation scales. For accurate, objective evalu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navy and the air force libraries which have different military traits have needs for grouping separately from the army libraries, and also proposed to make standard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for military libraries that can be used in each military line.

키워드: 병영도서관, 병영도서관 기준, 도서관 평가, 평가지표, 평가기준
military library, military library service, army library, library standard,
evaluation indicators, library evaluation

* 본 연구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의해 수행된 2007-8년 '병영도서관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와 '2009년 병영도서관 운영평가'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libsong@unikorea.go.kr)

■ 논문접수일자: 2009년 8월 17일 ■ 최초심사일자: 2009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9월 1일
■ 정보관리학회지, 26(3): 355-376, 2009. [DOI:10.3743/KOSIM.2009.26.3.355]

1. 서론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이건 간에 그 위험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쟁과 불의의 사고에 직면하게 되어있다. 또한 이를 차제하고라도 사회적 고립과 정보에서의 소외라는 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이다. 바로 이 점이 병역을 수행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헌법적 가치에 합당한 대우와 보답을 해 주어야 할 분명한 이유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병영도서관 건립운동과 법제화 노력은 바로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법제화는 의원입법을 통해 2003년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군대 안에 병영도서관을 둘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17년, 전시 상황에서 병영도서관을 만들어 병사들의 사기(morale), 복지(welfare),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을 고양하기 위한 MWR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병들의 학습과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또한 국가적인 병영도서관 관리기구가 펜타곤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도서관협회 내에 전담 부서와 상설 라운드테이블도 구성되어있다.¹⁾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병영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현대화 막사를 건립하면서 중대별로 20평 규모의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병영도서관'의 이름을 붙인 도서관이 1,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국방부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 그러면 이 들이 실제로 도서관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아직까지는 어렵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병영도서관이 독서환경 조성 및 문화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또한 군 전력에도 확실한 보탬이 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가차원의 병영도서관 육성은 물론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는 2007년 육군 3개 부대, 공군과 해군 각 1개 부대 등 5개 부대 병영도서관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2007년 시범평가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육·해·공군을 포함하여 모두 84개 부대 병영도서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우수 도서관에 대한 시상도 하였다. 서면평가와 실사를 겸한 나름대로 준비된 평가였지만 아직 군에 대한 인식과 실태 파악이 부족할 상태여서 일부 평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간의 평가가 군별 특성이나 부대별 환경 차이를 지표 적용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새로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2007년 필자가 제시한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2008년 84개 병영도서관에 적용한 결과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로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평가결과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를 현실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척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다음, 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군별 특성이 다른 육·해·공군의 병영도서관을 어떻게 그룹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1) 특수도서관협회의 라운드 테이블 관련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였음. [cited 2009.8.12].
 <<http://units.sla.org/division/dmil/AboutMLD.htm>>.

2. 병영도서관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

2.1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우리나라의 병영도서관의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지 없었다. 평가지표 뿐만 아니라 병영도서관에 관한 연구 자체가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는 단지 소수의 군부대 도서관에 관한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홍복일(1973)이 한국 군도서관의 재조직 문제를 다루었고, 오수국(1984, 1991)이 군 도서관의 운용방법 개선방안과 군교육 기관에서의 학술정보 이용 문제를 고찰하였는데 이는 육군사관학교 도서관과 같은 군부대내의 교육기관 도서관을 다룬 연구로써 일반 병사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영도서관의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병영도서관 현황과 발전과정을 최초로 다룬 것은 필자(송승섭 2003)와 민승현(2004)의 연구이다. 이후 필자는 차미경(2005)과 공동으로 병영도서관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는바, 이 연구 내용 중에 육군의 대대급, 사단급 병영도서관 설치에 관한 기준안이 있다. 여기에서 병영도서관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해리그(Katherine J. Harig 1989)의 저작을 참고하였지만 설치기준안의 직접적인 자료는 미국의 병영도서관 기준²⁾과 사례, 현황 조사 등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실사와 관계

자 면담, 그리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07)가 시범평가에 사용한 공공도서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필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병영도서관 평가지표(문화관광부 2007)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봉사 대상자인 장병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따로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관계로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7년 시범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와 관계자 면담, 수차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평가회의와 평가지표 심의가 있었고,³⁾ 금번 연구는 그 후속연구로 2008년 병영도서관 평가결과 분석과 실사내용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한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병영도서관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우리나라 병영도서관의 평가기준은 병영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에 앞서 2005년 연구되었다. 병영도서관 평가지표는 2005년 연구에서 병영도서관 기준과 함께 제시된 14개 분야의 평가지표가 중심이 되었다. 또한 14개의 평가지표를 좀 더 세분화하고 평가척도로 구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표 1>의 병영도서관의 양적 기준을 참고하였다. 병영도서관의 평가지표명은 법적 소관범위에 해당되는 공공도서관의 평가지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채

2) 관련 기준으로 (1) Army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Baseline Library Standards, (2) Department of Defense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Library Standards 등이 있다.

3) 병영도서관평가관련 실사는 2007년 11월 5개관, 2008년 9-10월에 10개관을 실시했고, 2009년 1월-4월 평가지표 수정관련 심의 등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주관 하에 지표관련 평가회의와 심의는 이 기간 전후에 모두 7차례 있었다.

〈표 1〉 양적 기준 요약표

	대 대	사 단
1. 조직	- 병영도서관 기본 설치단위 - 병영도서관 협력 시스템 단위 ※ 국방부-정책기획관-육군본부-군단·사단	- 병영도서관 거점 도서관 -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 이동문고 운영
2. 인력	- 도서관장: 최고지휘관이 역임 - 담당직원: 1인 이상 배치 - 연 1회 이상 재교육 참가	- 관장: 최고지휘관이 역임 - 담당직원: 2인 이상 배치 - 연 1회 이상 재교육 참가
3. 자료	- 기본 장서 6,000권에 병사 1인당 1권 이상 입수 - 연속간행물 기본 30종 - 참고자료 - 멀티미디어자료	- 기본 장서 10,000권에 병사 1인당 1권 이상 입수 - 연속간행물 기본 50종 - 참고자료 - 멀티미디어자료
4. 시설	- 위치: 접근이 용이한 적절하고 독립적인 장소 - 면적: 30평 이상 - 적절한 조명, 환기, 방습, 방음, 방화, 방진, 안전설비, 냉/난방 등의 장치 - 대출/반납, 열람/학습/연구, 참고/정보봉사, 자료 보관,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공간 - 장비: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CD R/W, 복사기, 마이크로자료 판독기/관독-인쇄기, 음반재생기, 테이프 녹음기, 빔 프로젝터,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스캐너, DVD 재생기, VTR, 무인반납기 등	- 위치: 접근이 용이한 적절하고 독립적인 장소 - 면적: 50평 이상 - 적절한 조명, 환기, 방습, 방음, 방화, 방진, 안전설비, 냉/난방 등의 장치 - 대출/반납, 열람/학습/연구, 참고/정보봉사, 자료 보관,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공간 - 장비: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CD R/W, 복사기, 마이크로자료 판독기/관독-인쇄기, 음반재생기, 테이프 녹음기, 빔 프로젝터,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스캐너, DVD 재생기, VTR, 무인반납기 등
5. 예산	- 국방부의 재정으로 운영 - 인건비(훈련비), 자료비, 기타 운영비로 나누어 배분 - 봉사대상군인 및 군무원 1인당 2만원 이상	- 국방부의 재정으로 운영 - 인건비(훈련비), 자료비, 기타 운영비로 나누어 배분 - 봉사대상군인 및 군무원 1인당 2만원 이상
6. 이용자 봉사	- 개관시간 평일 19: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21:00 - 대출, 참고/정보봉사	- 개관시간 평일 19: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21:00 - 대출, 참고/정보봉사 - 이동문고 운영: 내부에 서가를 설치해야하며 주1회 또는 격주 1회의 주기로 순환/봉사

택했다. 다음은 앞 서 언급한 병영도서관의 14 개 평가분야에서 병영도서관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도출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차미경, 송승섭 2005).

1. 장/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여부는 모든 도서관 평가의 기본 요소로서 계획과 그 실행 여부를 나누어 평가지표로 삼았다. 2. 시설의 규모 및 적절성은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병영도서관의 사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동선이 접

근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부대 중심에 도서관이 있는가를 먼저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도서관의 면적은 도서관의 기본 시설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군부대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체 면적(열람실/서고)만 대상으로 하였다. 이밖에 시설의 편의성도 향후 발전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됨으로 개괄적이거나 조명, 환기, 냉/난방 조건 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3. 자료의 양과 질적 가치, 주제별 분포는

장서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20%의 평가 비중을 두고 최신자료의 보유정도, 이용자 및 부대 특성의 반영 정도, 장서의 주제구성도, 전체 봉사대상수에 대한 장서수, 1인당 대출수, 도서관리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등을 평가 지표로 삼았다. 4. 자료보존의 환경과 기준의 적절성은 군부대의 특성상 전문적인 평가가 어려우므로 일부는 시설부문에 포함시켰지만 전반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5. 도서관의 직원 수와 그들의 업무능력은 향후 병영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지만 현재로서는 평가가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전담 사서 대신 전담 관리병이 있는지 그들이 도서관 관리 교육을 받았는지, 이를 지휘 통솔하는 부대장은 전문성과 철학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6. 예산의 계획 및 실행의 적절성은 현실적으로 이룬 감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평가 대상에 넣었다. 다만 민간단체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지원금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7. 도서관의 정보화 및 접근 가능성은 서비스분야로 이 역시 전체 20%에 해당하는 중심적 평가 대상이 된다. 이 분야의 평가지표로는 도서관 개관시간 정도와 인터넷 서비스 실시 여부, 멀티미디어 서비스 여부 등이 포함 되었고, 군부대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도서관 등과의 상호대차 실시 여부, 독서관련 행사나 이벤트 실시 여부, 도서관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8.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부문과 9.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기여도 부문은 군부대의 특성상 현 상황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평가대상으로 이번의 평가지표에서는 제외하였으나 그 중요도를 감

안하여 향후 재검토 사항으로 분류했다. 10. 봉사의 신속성(요구처리 소요시간)은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지만, 현재로서는 서비스 시간보다는 서비스의 실시 여부가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를 배제하였다. 11. 도서관의 기능 당 단위비용도 병영도서관의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과제로 남겼다. 12. 관종별, 지역별 도서관과의 협력정도는 군부대의 특성과 향후 국가도서관 발전계획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체 15%의 평가를 이 분야에 할당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여부나 병영도서관 간의 협력여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와의 협력여부를 주요 평가지표로 삼았다. 13.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기대효과는 앞의 교류협력분야의 지역사회(문화기관, 교육기관 등)와의 협력 사항에 포함했다. 14. 기타 병영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대장의 관심과 이를 지원하는 병영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립 등이 중요하므로 이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독서 서클 등 자치활동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를 포함하였다.

이상 살펴본 14개 분야의 평가대상 항목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표 1>의 양적 기준 6개 영역에서 도출된 30여개의 기준요소가 상당부분 채택되었다. 이 중 현실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문과 발전가능성을 위해 최소 필요요건으로 판단된 요소들을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평가요소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 8개영역 28개항의 평가 지표로 조정했다. 또한 군부대 장병들의 이해를 돕고 용이한 평가를 위해 총점을 100점으로 하였으며, 시범평가 유도과 도서관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평가 척도의 난이도는 크

지 않게 조정하였다. 다음 <표 2>는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병영도서관 평가지표이다 (송승섭 2007).

2.3 병영도서관의 평가지표와 적용

<표 2>의 평가지표는 앞 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의 병영도서관 기준을 기초로 필자가 연구한 우리나라의 병영도서관 평가기준과 공공도서관 평가지표를 참고로 개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병영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그 적용에 있어 병영도서관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배점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미래지향적 관

<표 2> 병영도서관의 평가지표

영역(점수/%)	세부 평가 지표	배점
		100
계획(5)	(1) 장/단기의 계획의 수립 및 계획의 적절성	3
	(2) 계획의 실행 여부	2
재정(5)	(3) 전체 병영도서관 예산/봉사대상 인구수	2
	(4) 민간단체 지원금(현물) 등 예산을 지원받은 실적	3
서비스(20)	(5) 도서관 개관 시간	3
	(6) 인터넷 서비스 여부	2
	(7) 멀티미디어 서비스 여부	2
	(8) 단행본 대출 기간 및 1인당 최대 대출 권 수	3
	(9) 상호대차 실시 여부	5
	(10) 독서 및 도서관관련 행사(교육) 실시 현황	2
	(11) 도서관운영에 대한 매뉴얼 설치 및 적정성	3
장서관리(20)	(12) 최신자료의 보유정도	3
	(13) 이용자 및 부대특성의 반영 정도	3
	(14) 장서구성의 주제 다양성	3
	(15) 장서의 수/봉사대상수	3
	(16) 봉사대상수 1인당 대출(열람) 건 수	3
	(17)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행 여부	5
인적자원(17)	(18) 부서장의 도서관 정책(전문성, 인식, 의지 등)	10
	(19) 도서관 전담사병 현황	5
	(20) 도서관 전담사병의 교육훈련 체계	2
시설(10)	(21) 도서관 위치의 접근성	3
	(22) 도서관 규모(전체면적, 서고와 열람실 면적 등)	4
	(23) 시설의 편의성(조명, 환기, 방습, 방음, 냉/난방)	3
교류협력(15)	(24) 지역 공공도서관의 협력 여부	5
	(25) 다른 병영도서관과의 연계 여부	5
	(26) 기타 타 문화기관,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여부	5
기타(8)	(27) 병영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여부	3
	(28) 독서 서클 등 도서관 관련 차치 활동 지원환경	5

점에서 평가지표로는 제시하되 그 배점은 낮추었다. 따라서 현 군부대의 수준을 반영하여 병영도서관 자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획(5), 재정(5), 시설(10) 분야의 비중을 가능한 낮추었고, 부대장이나 지휘부의 인식의 전환만 있어도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는 인적자원(17: 부서장의 도서관정책 등), 교류협력(15) 분야 등은 배점을 높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병영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분야로 생각되는 서비스(20)와 장서관리(20) 분야는 비중을 높였다. 또한 평가지표의 작성에 있어서도 평가 대상자인 군 장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선택에 있어 특별히 노력하였다.⁴⁾

이에 따라 평가지표의 배점 기준도 다른 관종의 도서관 기준을 크게 반영하지 않았고, 향후 병영도서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최소 기준적 성격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병영도서관 평가지표의 적합성은 전체 병영도서관의 1%도 되지 않는 5개 기관(육군3, 해·공군2)을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와 실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실시한 전국 84개 병영도서관의 평가지표 적용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3. 2008 병영도서관 평가지표 적용과 결과 분석

3.1 2008 병영도서관 평가 결과 종합

3.1.1 병영도서관 평가 대상과 참여율

2007년 실적을 평가하는 2008년 병영도서관 평가 대상의 선정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각 군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병력 규모를 감안하여 육군 3개 부대, 공군과 해군 각 1개 부대를 시범 평가대상으로 삼았던 2007년과는 달랐다. 2008년 병영도서관 평가 대상 기관의 선정은 전적으로 국방부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전체 100개 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삼기위해 노력하였고, 이 중 84개 기관이 신청하였다. 평가 참여는 병영도서관 수가 많은 육군이 6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병력수가 적은 해군이 12개, 공군이 9개 기관 순이었다. 2008년 병영도서관 평가에 있어 국무총리 표창 1개, 장관표창 4개로 총 5개 기관이 수상할 수 있었고, 담당자는 해외 도서관 견학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병영도서관 평가가 부대에 미치는

〈표 3〉 평가참여 병영도서관 수와 참여율

구분	육군	공군	해군	총합계
평가대상 수	1,089	61	149	1,299
참여 병영도서관 수	63	9	12	84
참여율(%)	5.8	15	8.1	6.5

4)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완전한 적용문제에 앞서 설문지에 대한 장병들의 이해력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설문지를 장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불이익이 없는 반면, 평가가 좋은 경우에는 부대 및 부대장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병영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 통계 <표 4>에 의하면 전체 병영도서관 수가 1,299(학교·전문도서관, 국방부 제외)개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전체 평가참여율은 6.5%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기지를 바탕으로 병영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공군은 15%, 해군의 경우는 8.1%로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육군의 5.8%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도서관 평가는 2008년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아직 그 참여율은 타 관종의 도서관 보다는 낮다. 그러나 앞서의 포상규정이 계속 시행될 계획이고, 부대장 의식이 병영 환경 개선과 장병들의 복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향후 평가 참여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1.2 병영도서관 평가 평균점수

병영도서관 평가결과는 전체 평균 78점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전체 평균 8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공군이 평균 85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육군이 75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적인 내용과 실사결과는 다시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2007년 시범 평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07년 시범 평가(육군 3개 기관 평균 77점, 해군 1개 기관 89점, 공군 1개 기관 80점)는 국방부에 의뢰해 5개 기관만 수행했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는 크지 않지만 평가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국 육·해·공군을 동일한 평가지표로 측정할 경우에 육군은 다른 군과 평균 10점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2007년, 2008년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5 참조).

3.1.3 군별 병영도서관 평가점수 분석

군별 점수 분포를 보면, 공군의 경우 75점에서 99점, 해군은 77.5점에서 97.5점으로 공군과 해군 양 군은 비슷한 상하위 편차와 분포를 보이면서도 최하점이 육군의 최하점보다 20점 정도를 상회했다. 그러나 육군의 경우는 최하점

<표 4> 병영도서관 현황

2006년 12월 기준

구분	학교·전문도서관	군단급 이상	사단급	여단급	연대급	대대급	기타	계
국방부/합참/국직	12	1	2	3	19	-	1	38
육 군	12	16	-	-	-	1,073	-	1,101
해 군	9	1	6	15	64	63	-	158
공 군	4	1	3	18	21	18	-	65
계	37	19	11	36	103	1,154	1	1,361

<표 5> 병영도서관 평가 평균점수

구분	공군	육군	해군	총합계
부대수	9	63	12	84
평균	85	75	86	78

〈표 6〉 군별 병영도서관 점수분포

()는 %

구분/점수	45-50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5	86-90	91-95	96-100	계
육군	1 (1.6)	-	1 (1.6)	5 (7.9)	12 (19.1)	13 (20.6)	13 (20.6)	9 (14.3)	4 (6.4)	3 (4.8)	2 (3.2)	63 (100)
해군	-	-	-	-	-	-	1 (8.3)	6 (50)	1 (8.3)	3	1 (8.3)	12 (100)
공군	-	-	-	-	-	1 (11.1)	2 (22.2)	1 (11.1)	2 (22.2)	2 (22.2)	1 (11.1)	9 (100)
계	1 (1.2)	-	1 (1.2)	5 (6.0)	12 (14.3)	14 (16.7)	16 (19.1)	16 (19.1)	7 (8.3)	8 (9.5)	4 (4.8)	84 (100)

45.5점에서 최고점 97.5점으로 50점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장 하위 그룹인 75점미만 병영도서관(52위-84위)이 33개로 전체 40%가 육군 도서관에 해당되는 등 구간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반면 상위 80점 이상 35개 병영도서관 분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군 92%(11개 기관), 공군은 67%(6개 기관), 육군 29%(18개 기관)로 전반적으로 해군이 우수하고 공군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육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도 시범 평가분석에서 이미 예측된 것으로 군별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 평가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육군

현행 평가지표는 육군의 대대급, 사단급 병영도서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체대 규모나 운영 방식 등에 따른 상대적 차이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육군이 다른 군에 비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평가

그룹핑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군과 공군의 병영도서관 환경은 차이가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진지(base, camp) 개념의 군부대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진행해 온 해군과 공군에 비해 공격과 이동(post) 중심 개념의 임시적 공간을 유지해 온 육군을 동일 비교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세부적으로는 육군 내에 대대급, 사단급 병영도서관도 체대 규모나 근무환경, 부대 특성에 따라 그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육군 전체적으로 볼 때, 사단/군단 사령부급 병영도서관과 대대급 병영도서관간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이다. 80점 이상 상위 35개 기관 중에 육군의 사단/군단 사령부 병영도서관은 9개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일반 대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수성을 갖는 교육대대나 포병대대, 공병대대가 있지만 절대 다수인 보병대대가 거의 없다는 것은 병영도서관 육성 목적과 지향점에 반해 의미가 반감되는 부분으로 앞으로의 정책적 지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평가를 통해 이제 육군 내에도 도서관 평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평가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나 일부 사례조사를 배제하고 전면적인 육군 병영도서관의 실태조사를 엄밀하게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병영현대화”계획에 따라 병영도서관이 건립되고 있거나 민간 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도서관의 향후 관리가 평가에 보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군부대의 특성상 직접적인 관리가 어렵다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공군·해군

공군·해군은 상대적으로 육군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는 앞서 분석된 것처럼 공군·해군이 육군과는 기본적으로 병영 환경과 제도,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군·해군은 현행 육군 병사들을 주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 적용에는 상대적으로 이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주둔과 방어 역할이 우선시되는 부대 배치에 따라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대 생활에 있어서도 외출이 상대적 많고 내부 시설과 생활환경도 좋은 편이다. 또한 군부대가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복지시설도 상당부분 구비되어 있고, 장교비율이 높으며, 출퇴근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 병영도서관 이용 실태에 있어서도 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등 육군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체 부대 규모를 볼 때 현행 20평-30평 규모의 육군도서관 수준에서는 이용자 요

구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으로 공군·해군의 병영도서관도 육군과 다른 차원에서 별도의 세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대별 규모와 근무지 상황을 평가척도에 반영하고, 우선적으로 차후 평가에서는 육군과 별도로 공군·해군을 그룹평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간 점수 차이를 줄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본 점수를 높이 주는 현행 방식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군과 해군의 학교·전문도서관을 제외하면 210개의 병영도서관이 실재하므로 실태조사 대상도 육군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평가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좀 더 내실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1.4 실사결과 종합 분석

육·해·공군 상위 10개 도서관을 실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병영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고, 정훈참모나 부관참모, 그리고 부대장(대대장 등)의 관심이 높았다. 다만 병영도서관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만큼 자료 관리와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의미 있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포상규정에 대한 관심이나 자료 지원 가능성에 대한 문의는 많았지만 평가지표에 대한 제안이나 지적사항, 다른 의견은 없었고 그만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담 인력도 부재한 상태였다.

특히 도서관 통계시스템을 통한 답변(서면 평가)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각 군의 담당자들이 병영도서관 설문 문항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다. 물론 대부분 정상

적인 답변을 보내왔지만 30% 정도 되는 상당수의 도서관에서는 답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직접적인 실사결과에서도 설문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병영도서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오히려 실제 수준보다 낮게 답변을 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평가 시에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고, 설문지 작성교육도 군별 담당자에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설문지의 적용과 해석도 상당부분 군부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이지만 향후에도 군부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사회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병영도서관 평가지표는 현재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의도성 있는 평가 목표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어 실제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평가는 국방부에 의뢰하여 그 평가대상이 다소 임의적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이 결과를 병영도서관 전체 평가로 일반화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다만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던 병영도서관을 평가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발전적 진전을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다른 관종과 같은 수준에서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또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3.2 2008 병영도서관 항목별 평가 결과 분석

2008년도 병영도서관 평가의 세부 내용은 <표 7>과 같다. 병영도서관 평가의 목적상 도서

관간 차이를 크게 두지 않기 위하여, 상·중·하 또는 상·중으로 3단계 또는 2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배점 기준은 10점 만점일 경우, 상:10점, 중:8점, 하:6점으로 단계별 차이를 2점으로 하였고, 5점 만점일 경우, 상:5점, 중:4점, 하:3점으로 단계별 차이를 1점으로 하였고, 3점이나 2점이 만점일 경우는 상:3점 또는 2점, 중:2.5점 또는 1.5점, 하:2점 또는 1점으로 단계별 차이를 0.5점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밖에 일부 현재의 병영도서관 환경을 반영하여 영역별 평가지표별로 단계를 줄이거나 점수 간격에 차이를 둘 수 있게 하였다.

1) 계획 영역(5점)

- (1) 장/단기의 계획의 수립 및 계획의 적절성은 성문화된 장·단기 계획(기 결재된)이 있으면 3점,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계획을 새로 수립했으면 2.5점(*금번 평가에서는 질적인 평가는 제외)으로 평가하였는데 육군 2.2, 공군 2.3, 해군 2.5로 3군 공히 큰 차이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장단기 계획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계획의 실행 여부는 장/단기 계획을 실천한 근거(증빙 서류: 결재 문서 등)가 있으면 2점, 그렇지 않으면 1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육군과 공군이 1.3점, 해군이 1.4점으로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부분(35%)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영역(5점)

- (3) 전체 병영도서관 예산/봉사대상 인구수

〈표 7〉 군별 병영도서관 세부 평가지표 평균점수

영역	세부 평가 지표	배점	육군	공군	해군
계획(5)	(1) 장/단기의 계획의 수립 및 계획의 적절성	3	2.2	2.3	2.5
	(2) 계획의 실행 여부	2	1.3	1.3	1.4
재정(5)	(3) 전체 병영도서관 예산/봉사대상 인구수	2	2.0	2.0	2.0
	(4) 민간단체 지원금(현물) 등 예산을 지원받은 실적	3	2.6	2.7	2.6
서비스(20)	(5) 도서관 개관 시간	3	2.7	3.0	3.0
	(6) 인터넷 서비스 여부	2	1.1	1.6	1.5
	(7) 멀티미디어 서비스 여부	2	1.1	1.2	1.4
	(8) 단행본 대출 기간 및 1인당 최대 대출 권 수	3	2.7	2.8	3.0
	(9) 상호대차 실시 여부	5	3.2	3.0	3.7
	(10) 독서 및 도서관관련 행사(교육) 실시 현황	2	1.2	1.4	1.5
	(11) 도서관운영에 대한 매뉴얼 설치 및 적정성	3	2.3	2.3	2.5
장서관리(20)	(12) 최신자료의 보유정도	3	1.5	2.6	2.7
	(13) 이용자 및 부대특성의 반영 정도	3	3.0	3.0	3.0
	(14) 장서구성의 주제 다양성	3	2.6	3.0	2.9
	(15) 장서의 수/봉사대상수	3	1.7	3.0	2.5
	(16) 봉사대상수 1인당 대출(열람) 건 수	3	1.9	2.7	3.0
	(17)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행 여부	5	3.9	5.0	4.3
인적자원(17)	(18) 부서장의 도서관 정책(전문성, 인식, 의지 등)	10	8.4	9.0	8.7
	(19) 도서관 전담사병 현황	5	4.7	4.7	4.9
	(20) 도서관 전담사병의 교육훈련 체계	2	1.2	1.4	1.5
시설(10)	(21) 도서관 위치의 접근성	3	2.8	3.0	3.0
	(22) 도서관 규모(전체면적, 서고와 열람실 면적 등)	4	2.9	3.8	3.7
	(23) 시설의 편의성(조명, 환기, 방습, 방음, 냉/난방)	3	2.3	2.8	2.8
교류협력(15)	(24) 지역 공공도서관의 협력 여부	5	3.7	4.2	4.1
	(25) 다른 병영도서관과의 연계 여부	5	3.4	3.9	4.0
	(26) 기타 타 문화기관,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여부	5	3.6	3.7	4.1
기타(8)	(27) 병영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여부	3	1.9	2.0	2.3
	(28) 독서 서클 등 도서관 관련 자치 활동 지원환경	5	3.9	3.7	3.8
계		100	75.4	85.1	86.2

측정은 병영도서관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병영도서관 기준(안)에 따른 권장기준을 적용하려했으나,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여, 금번 평가에서는 전체 대상에 2점을 부여하여 사실상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 분야에서의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이나, 평가 상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평가지표로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민간단체 지원금(현물) 등 예산을 지원 받은 실적은 지역 공공도서관, 또는 민간단체 등 외부에서 지원받은 실적이 있으면 3점, 지원 약속을 받은 근거나 향후 계획 있으면 2.5점, 전혀 없으면 2점을

부여하였다. 육군과 해군이 2.6, 공군이 2.7로써 대부분의 군부대가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당수준의 지원 실적이 있는 만큼 정확한 실적 반영을 위해 배점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서비스 영역(20점)

- (5) 도서관 개관 시간은 평일 2시간 이상, 휴일 10시간 이상이면 3점을 부여하고, 평일 2시간 이하, 휴일 10시간 이하이면 2점을 부여하였다. 도서관 개관 시간은 전체 군이 평가지표를 거의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군이 거의 일률적으로 열람시간을 지침화 시킨 것이어서 그 차이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출퇴근 개념이 있는 공군, 해군과 육군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후 평가에는 이에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6) 인터넷 서비스 여부는 서비스를 하면 2점, 하지 않으면 1점을 부여했다. 공군과 해군이 1.6, 1.5로 다소 높은 반면 육군은 1.1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육군은 지역적 취약성이나 보안문제로 인터넷 이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7) 멀티미디어 서비스 여부는 서비스를 하면 2점, 하지 않으면 1점을 부여했다. 육군 1.1, 공군 1.2, 해군 1.4로 큰 차이는 없지만 해군이 다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단행본 대출 기간 및 1인당 최대 대출권 수 측정은 단행본 대출기간이 1주일

이상이고, 대출 실적이 있으면 3점, 단행본 대출기간이 1주일 이하이고, 대출 실적이 있으면 2.5점, 단행본 대출기간이 1주일 이하이고, 대출 실적이 없으면 2점을 부여했다. 사실상 전체 장서량이 부족한 병영도서관을 고려하여 1인당 최대 대출권수는 평가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1주일을 상회하는 대출기간을 준수하고 대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양호한 평가결과가 있는 만큼 이후 평가에서는 배점간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9) 상호대차 실시 여부는 부대내(사단 또는 연대, 대대간) 또는 지역 공공도서관(이동도서관)과 상호대차 실적이 있으면 5점, 부대내(사단 또는 연대, 대대간) 또는 지역 공공도서관(이동도서관)과 상호대차 계획이 있으면 4점, 부대내(사단 또는 연대, 대대간) 또는 지역 공공도서관(이동도서관)과 상호대차 실적 또는 계획이 없으면 3점을 부여하였다. 해군이 3.7로 다소 높았으나 다른 군은 기본점수(3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상호대차실시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배점이 높았는데 병영도서관 간 차이를 적게 주기 위하여 기본점수를 높게 배정하여 실제적인 차이를 나타내기 어려웠다. 이후 평가부터는 실적 반영을 높이는 측면에서 기본점수를 하향 조정하고나 척도 간격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0) 독서 및 도서관관련 행사(교육) 실시

현황 평가는 독서 및 도서관관련 행사(교육) 실적이 있으면 2점, 독서 및 도서관관련 행사(교육) 계획이 있으면 1.5점, 독서 및 도서관관련 행사(교육) 실적이나 계획이 없으면 1점을 부여했다. 육군 1.2, 공군 1.4, 해군 1.5로 교육 측면에서 해군과 공군이 비교적 높았다. 독서 및 도서관 교육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교육 계획만 있어도 1.5점을 주었는데, 향후 평가에는 실제적 성과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1) 도서관운영에 대한 매뉴얼 설치 및 적정성 평가는 기 결재된 도서관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설치되어 있으면 3점, 새롭게 작성된 도서관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2.5점, 도서관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으면 2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군이 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군과 공군은 2.3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기본 점수가 2점인만큼 향후 배점 간격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장서관리 영역(20점)

- (12) 최신자료의 보유정도는 당해년도 신간(단행본) 기준 100권 이상 3점, 당해년도 신간(단행본) 기준 80권 이상 2.5점, 당해년도 신간(단행본) 기준 50권 이상 2점을 부여했다. 사단급과 대대급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평가는 동일하게 취급했다. 육군은 1.5에 그친 반면, 해군은 2.5, 공군은 2.3으로 비교적

높았다. 최신자료보유수는 육군이 다른 군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으로 신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방법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3) 이용자 및 부대특성의 반영 정도는 부대별 특성(주특기에 따른 관련 도서)에 맞는 장서구비 현황으로 전체 장서의 30%이상 3점, 20% 이상 2.5점, 10% 이상 2점을 부여하는 것이나 2008년도에는 현황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대상 기관 전체에 3점을 부여했다. 좀 더 평가 척도가 용이한 “이용자 신청도서 접수 실적” 등 다른 항목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4) 장서구성의 주제 다양성은 KDC 분류표 유별(000번대-900번대) 구분으로 전분야(10) 장서가 있을 경우 3점, 9개 분야일 경우 2.5점, 8개 분야일 경우 2점을 부여한 것으로 공군 3.0, 해군 2.9로 거의 대부분 병영도서관이 이를 충족했고, 육군의 경우는 2.6으로 약간 낮았다.
- (15) 장서의 수/봉사대상수는 대대급 기준 6,000권 이상 3점, 4,000권 이상 2점, 2,000권 이상 1점, 사단급 기준 10,000권 이상 3점, 8,000권 이상 2점, 6,000권 이상 1점을 부여하였는데 공군 3.0, 해군 2.9로 높았고 육군은 1.7로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이 분야도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육군이 가장 신경 써야 할 평가지표로 판단된다.
- (16) 봉사대상수 1인당 대출(열람) 건수는

사단급 기준, 대출건수가 연 500건 이상일 경우 3점, 400건 이상일 경우 2.5점, 300건 이상일 경우 2점을 부여했고, 대대급 기준은 대출건수가 연 200건 이상일 경우 3점, 150건 이상일 경우 2.5점, 100건 이상일 경우 2점을 부여했다. 해군 3.0 공군 2.7로 높았고, 육군은 1.9로 비교적 낮았다. 이 분야 역시 해·공군과 육군의 측정 척도를 달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7)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행 여부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으면 5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으면 4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3점을 부여했다. 공군 5.0, 해군 4.3으로 비교적 높았고, 육군은 3.9에 그쳤다. 평가척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인적자원 영역(17점)

- (18) 부서장의 도서관 정책(전문성, 인식, 의지 등) 평가는 부서장 면담과 부서장의 도서관 관련 교육이나 지시사항 관련 문건을 통해 도서관 정책, 도서관 발전계획, 도서관 운영관련 전문성을 종합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구상과 의지가 높으면 10점, 현재 상황 유지 정도면 8점, 관심도 자체가 낮으면 6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면담이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하여 서류심사로 하되 상·중·하로 배점 간격을 1점으로 하여 서면평가에 있을 수 있

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한 영역이다. 육군 8.4, 공군 9.0, 해군 8.7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인 평가항목 개발이나 평가척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9) 도서관 전담사병 현황은 대대급인 경우 도서관 전담사병이 1명 이상 있으면 5점, 전담사병 없이 순번제 근무일 경우 4점, 미지정일 경우 3점으로 하고, 사단급인 경우 도서관 전담사병이 2명 이상 있으면 5점, 1명 있으면 4점, 그 밖에 경우 3점을 부여했다. 해군 4.9, 공군과 육군이 4.7로 도서관 전담 사병이 대체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사병이 없는 경우에 다른 기본 점수의 하향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 (20) 도서관 전담사병의 교육훈련 체계 평가는 도서관 전담사병이 도서관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2점, 자체적으로 학습 기회를 갖게 한 경우 1.5점, 전혀 교육이나 학습기회가 없는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해군 1.5, 공군 1.4, 육군 1.2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해군이 교육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필요성으로 미루어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 기본점수 없이 0점 처리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시설영역(10점)

- (21) 도서관 위치의 접근성 평가는 병영도서관의 위치가 부대 중심부에 있을 경

우 3점, 인접위치 2.5점, 번두리 2점을 부여(*단 독립 중대나, 격오지 등 특수 환경은 제외)하였다. 공군과 해군이 3.0, 육군이 2.8로 대부분 부대 중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사의 객관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22) 도서관 규모(전체면적, 서고와 열람실 면적 등)는 대대급은 20평 이상 4점, 15평 이상 3점, 10평 이상 2점으로 하며, 사단급은 30평 이상 4점, 20평 이상 3점, 15평 이상 2점으로 하였다. 공군 3.8, 해군 3.7, 육군 2.9로 시설규모에서는 역시 공군과 해군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시설의 편의성(조명, 환기, 방습, 방음, 냉/난방)은 다양한 항목 평가가 가능한 분야이지만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세부 기준을 따르되 우선적으로 난방이 가능하여 동절기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 3점, 그렇지 않으면 1점을 부여하였다. 공군과 해군이 2.8로 대부분 동절기 난방이 되는 반면, 육군은 2.3으로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서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교류협력 영역(15점)

(24) 지역 공공도서관의 협력 여부는 부대 주변 공공도서관과 협력 실적(상호대차, 이동도서관 연계 운영 등)이 있으면 5점, 협력계획이 있으면 4점, 협력계획도 없으면 3점을 부여하였다. 공군 4.2, 해군 4.1로 육군 3.7에 비해 높았

다. 향후 평가에는 실제적인 협력계획이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한 평가와 배점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25) 다른 병영도서관과의 연계 여부는 (9)번 항목의 상호대차 이외의 인근 타 부대 병영도서관과 정보 교환 등 교류협력 활동실적이 있으면 5점, 교류 협력 활동계획이 있으면 4점, 그렇지 않으면 3점으로 하였다. 해군 4.0, 공군 3.9, 육군 3.4로 나타났는데, 미래지향적 가치 유도 측면이 강한 배점이었다. 향후 조정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6) 기타 타 문화기관,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여부는 지역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시민 단체와의 협력 또는 지원 받은 실적이 있으면 5점,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4점, 계획도 없으면 3점으로 하였다. 해군 4.1, 공군 3.7, 육군 3.6으로 나타났다. (25)번 항목과 함께 미래지향적 가치 유도 측면이 강한 배점이었다. 향후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다.

8) 기타 항목(8점)

(27) 병영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여부 평가는 병영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실적이 있으면 3점, 설치만 되어 있으면 2.5점, 설치 계획이 잡혀 있으면 2점으로 하였다. 해군 2.3, 공군 2.0, 육군 1.9로 나타났다. 병영도서관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측면의 장치라는 점에서 배점 계획을 변경할 필요

가 있는 항목이다.

- (28) 독서 서클 등 도서관 관련 자치 활동 지원환경 평가는 독서 서클 등 도서관 관련 자치 활동 실적이 있으면 5점, 자치 활동지원 계획이 서 있으면 4점, 자치활동 계획도 없으면 3점으로 하였다. (28)번 항목은 (18)번의 부서장의 도서관 정책과도 관련된다. 육군 3.9, 해군 3.8, 공군 3.7로 전군 수준이 비슷하였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기본 점수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별 분석 결과도 앞서 본 종합평가와 같이 해군과 공군이 육군보다 전체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군은 3군 가운데 1위 항목(공동1위 포함)이 17개, 공군은 10개인 반면, 육군은 단 1개 항목에서만 0.1점차 1위가 있을 뿐이다. 본 항목별 평가 분석을 통하여 양적 결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군이 가장 우수하고 공군도 다소 못 미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신자료 보유 정도 등 장서관리 영역과 도서관 규모 등에서 사실상 육군과 다른 군과의 차이가 상당 수준 벌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평가지표의 수정과 보완

전체 서면 평가와 항목별 평가 분석, 실사 결과를 종합할 때, 각 평가 결과가 대체로 일치했다. 전체적으로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2008년

병영도서관 평가지표는 병영도서관의 준립 목적과 존재 가치를 알리고, 병영도서관의 평가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의도성 있는 평가 목표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어 병영도서관의 실제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되었으며, 도서관간 차이도 가급적 나타내지 않으려는 하였다. 그렇다 보니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는 도서관들이지만 평가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을 실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 시범평가와 2008년 일반 평가가 있었지만 아직 병영도서관 전체로 보면 열악한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제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파급력을 감안하고, 향후 발전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좀 더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첫 번째로 육군과 해군·공군을 분리하여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다. 앞서의 전체 분석과 항목별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슷한 수준의 병영도서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해군과 공군을 한 그룹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병영도서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병영도서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의 병영도서관을 한 그룹으로 하여, 육군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두 그룹의 병영도서관 평가지표 적용이 그 척도에 있어 일부 다르게 된다.

둘째, 장서관리 영역의 '이용자 및 부대특성의 반영정도(13번)'는 서면 평가만으로는 정확

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가지표를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권 수'로 변경한다.

셋째, 장서관리 영역의 '장서의 수/봉사대상수(15번)'에서 '봉사대상수'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군부대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봉사대상수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봉사대상수당 장서평가 보다는 평가지표명을 병영도서관의 전체 '장서의 수'로 변경한다. 다만 부대별로 실태 조사 차원에서 전체 봉사대상자수를 설문지 항목에는 게재하게 한다. 또한 2008년도 평가에서 이미 권장 수준에 도달한 공군과 해군은 평가척도를 상향 조정하고, 육군은 그대로 실시한다.

넷째, 장서관리 영역의 '봉사대상수 1인당 대출(열람) 건수(16번)'도 '봉사대상수'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군부대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봉사대상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봉사대상수 1인당 대출(열람) 건수' 보다는 평가지표명을 병영도서관의 전체 '대출(열람) 건 수'로 변경한다. 또한 2008년도 평가에서 이미 권장 수준에 도달한 공군과 해군은 평가척도를 상향 조정하고, 육군은 그대로 실시한다.

다섯째, 기타 영역은 평가영역을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부대내 '도서관 지원'영역으로 영역명칭을 변경하고, (27)번 '병영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여부'에 대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높인다.

여섯째, 좀 더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척도에 있어 기본점수를 없애거나 낮추고 일부 평가지표의 배점 조정을 다시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 영역 (4)번 '민간단체 지원금(현

물) 등 예산을 지원받은 실적'에서 실적이 있는 경우는 3점으로 하고, 향후 지원 약속을 증명할 수 있으면 2점으로 하며 기본점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서비스 영역(5번) '도서관 개관 시간'에서 해군·공군은 출퇴근 개념이 부대 근무에 적용되어 토요일, 일요일 개관하지 않는 병영도서관이 많으므로 평일시간만 적용한다. 육군은 종전대로 한다.

(3) 서비스 영역 (8)번 '단행본 대출 기간 및 1인당 최대 대출 권 수'는 전체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받는 항목으로 기본 점수를 없애고, 대출기간이 1주일 이상이고 대출실적이 있으면 3점, 대출기간이 1주일 이하이고 대출실적이 있으면 2점으로 한다.

(4) 서비스 영역 (9)번 '상호대차 실시 여부'에서는 기본점수를 없애고 실적이 있으면 5점, 향후 약속된 실적이 증명되면 3점으로 배점간격을 조정한다.

(5) 서비스 영역 (10)번 '독서 및 도서관관련 행사(교육) 실시 현황'에서는 기본점수를 없애고 교육(행사) 실적이 있으면 2점, 교육(행사) 실적이나 계획이 잡혀 있으면 1점으로 조정한다.

(6) 서비스 영역 (11)번 '도서관운영에 대한 매뉴얼 설치 및 적정성'에서는 기본점수를 없애고, 매뉴얼이 설치되어 있으면 3점, 새롭게 매뉴얼을 작성해 놓았으면 2점으로 한다.

(7) 장서관리 영역 (12)번 '최신자료의 보유 정도'는 공군과 해군은 기존 평가에서 이미 만점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척도를 상향조정하고, 육군은 그대로 한다. 또한 배점을 높여 가능한 군에 신간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군과 해군은 신간 200권 이상 5점, 150권 이상 4점, 100권 이상 3점, 50권 이상 2점, 1-49권까지는 1점으로 한다. 육군은 100권 이상 5점, 80권 이상 4점, 50권 이상 3점, 20권 이상 2점, 10권 이상 1점을 부여한다.

- (8) 장서관리 영역 (17)번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행 여부'는 군부대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대부분 실행하고 있어 전체 배점을 5점에서 3점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실행하고 있으면 3점, 실행하고 있지 않으면 2점으로 하고 기본점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9) 인적자원 (18)번 '부서장의 도서관 정책(전문성, 인식, 의지 등)'은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지만 서면 평가만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우므로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점수간격도 부서장의 도서관 정책이 우수할 경우, 5점 보통일 경우 4점, 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점으로 한다.
- (10) 인적자원 (20)번 '도서관 전담사병의 교육훈련 체계'는 실제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향후 병영도서관 발전에 지속적인 관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배점을 2점에서 5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도서관 관련 외부 전문 교육(3일 이상)을 이수

하면 5점, 자체 교육을 받으면 3점, 교육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2점으로 한다.

- (11) 시설영역 (21)번 '도서관 위치의 접근성' (22)번 '도서관 규모(전체면적, 서고와 열람실 면적 등)' (23)번 '시설의 편의성(조명, 환기, 방습, 방음, 냉/난방)' 등은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많지만 향후 병영도서관의 시설 개선을 위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기본점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12) 교류영역 (24)번 '지역 공공도서관의 협력 여부', (25)번 '다른 병영도서관과의 연계 여부', (26)번 '기타 타 문화기관,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여부' 등은 외부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 군부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향후 병영도서관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점수를 없애고 협력실적이 있으면 3점, 협력 계획이 실재하면 2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 (13) (28)번 '독서 서클 등 도서관 관련 자치활동 지원환경'은 교류협력 영역과 같이 향후 병영도서관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점수를 없애고 활동실적이 있으면 5점, 활동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3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일곱째, 2009년도 서면 평가를 위한 설문지 작성은 군부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도서관관련 전문성이 없는 병영도서관 관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며, 기회를 만들어 군부대 평가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을 권장한다.

다음, 전체 평가지표의 수정 내용을 표로 만들면 <표 8>과 같다.

5. 결론 및 제언

2008년 사용한 평가지표는 차미경과 필자가

연구한 병영도서관 기준(안)을 참고로 개발하였으나, 병영도서관 설립과 운영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병영도서관 관계자가 가급적 쉽게 이해하고 실행하기 쉬운 수준에서 단순, 명확하게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의 전체 배점도 100점을 만점으로 채점이 용이하게 작성하였으며, 배점 기준도 공공도서관 기준을 크게 반영하지 않았고, 향후 병영도서관

<표 8> 수정된 평가지표

영역	세부 평가 지표	배 점
계획(5)	(1) 장/단기의 계획의 수립 및 계획의 적절성	3
	(2) 계획의 실행 여부	2
재정(5)	(3) 전체 병영도서관 예산/봉사대상 인구조	2
	(4) 민간단체 지원금(현물) 등 예산을 지원받은 실적	3
서비스(20)	(5) 도서관 개관 시간	3
	(6) 인터넷 서비스 여부	2
	(7) 멀티미디어 서비스 여부	2
	(8) 단행본 대출 기간 및 1인당 최대 대출 권 수	3
	(9) 상호대차 실시 여부	5
	(10) 독서 및 도서관관련 행사(교육) 실시 현황	2
	(11) 도서관운영에 대한 매뉴얼 설치 및 적정성	3
장서관리(20)	(12) 최신자료의 보유정도	5
	(13)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권수	3
	(14) 장서구성의 주제 다양성	3
	(15) 전체 장서수	3
	(16) 전체 대출건수	3
	(17)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행 여부	3
인적자원(15)	(18) 부서장의 도서관 정책(전문성, 인식, 의지 등)	5
	(19) 도서관 전담사병 현황	5
	(20) 도서관 전담사병의 교육훈련 체계	5
시설(10)	(21) 도서관 위치의 접근성	3
	(22) 도서관 규모(전체면적, 서고와 열람실 면적 등)	4
	(23) 시설의 편의성(조명, 환기, 방습, 방음, 냉/난방)	3
교류협력(15)	(24) 지역 공공도서관의 협력 여부	5
	(25) 다른 병영도서관과의 연계 여부	5
	(26) 기타 타 문화기관,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여부	5
지원(10)	(27) 병영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여부	5
	(28) 독서 서클 등 도서관 관련 자치 활동 지원환경	5

* 기존 평가지표와 달라진 부분은 진한 글씨로 표시하였음.

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최소 기준적 성격으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현 군부대의 특성상, 병영도서관 자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획, 재정, 시설 분야의 비중을 가능한 낮추었고, 부대장이나 지휘부의 인식의 전환만 있어도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는 인적 자원, 교류협력, 지원 분야는 배점을 높였다.

그러나 앞서 평가분석에서 본바와 같이 육군은 전체 평균 75점에 그친 반면, 해군과 공군은 평균 85점을 넘었다. 그리고 항목별 분석에 있어서도 해군과 공군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많았던 반면 육군은 그러하지 못했다. 2008년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파급력을 감안하고, 향후 발전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좀 더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새롭게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배점이나 평가척도를 조정하여 2009년 이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과 해군·공군을 분리하여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둘째, 장서관리 영역의 '이용자 및 부대특성의 반영정도(13번)'는 서면 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가지표를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권 수'로 변경한다.

셋째, 장서관리 영역의 평가지표 '장서의 수/봉사대상수'를 전체 '장서의 수'로 변경한다.

넷째, 장서관리 영역의 평가지표 '봉사대상

수 1인당 대출(열람) 건수(16번)'를 전체 '대출(열람)건 수'로 변경한다.

다섯째, 기타 영역은 평가영역을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부대 내 도서관 '지원'영역으로 영역 명칭을 변경한다.

여섯째, 좀 더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척도에 있어 기본점수를 없애거나 낮추고 일부 평가지표의 배점을 다시 조정한다.

일곱째, 2009년도 서면 평가를 위한 설문지 작성은 군부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도서관관련 전문성이 없는 병영도서관 관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며, 기회를 만들어 군부대 평가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권장한다.

육·해·공군에 대한 병영도서관 평가가 공공도서관 수준의 평가에 이르기까지는 향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병영도서관 실태조사표준안을 작성하고, 전수조사에 주력하는 한편, 참여대상 도서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국방부와 육·해·공군 병영도서관 관련 부처, 그리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과 민간단체(또는 한도협)가 참여하는 '병영도서관발전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 개선과 장기적 발전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병영도서관의 운영관련 시범사업과 미군의 병영도서관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 병영 현실을 반영한 실제적인 조사·연구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편. 2007. 『도서관운영 평가연구 시범사업결과보고서』, 159.
- 문화체육관광부 편. 2008.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233.
- 민승현. 2004. 이제 새로운 군대를 이야기 하자.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자료집』.
- 송승섭. 2003.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발전방향. 『도서관』, 58(3): 77-102.
- 송승섭. 2007. 『병영도서관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43.
- 오수국. 1984. 『군 도서관의 운용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
- 오수국. 1991. 『군교육기관에서 학술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4.
- 차미경, 송승섭. 2005. 『병영도서관 운영모델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74
- 차미경. 2002. 공공도서관 통계항목의 설정과 수집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73-88.
- 홍복일. 1973. 『한국 군도서관의 재조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7.
- Harig, Katherine J. 1989. *Libraries, the Military, & Civilian Life*. Library Professional Publications, 194.
- DOD. 2003. *Department of Defense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Library Standards*. [cited. 2009.8.12]. <http://www.militaryhomefront.dod.mil/dav/lsn/LSN/BINARY_RESOURCE/BINARY_CONTENT/1662321.pdf>.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08. *Military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Programs and Nonappropriated Fund Instrumentalities*. Army Regulation 215-1. [cited. 2009.8.12]. <http://www.army.mil/usapa/epubs/pdf/r215_1.pdf>.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Army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Baseline Library Standards. [cited. 2009.8.12]. <<http://www.armymwr.com/corporate/docs/libraries/mwrlibrarystandards.pdf>>.
- SLA. Military Libraries Division of the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cited. 2009.8.12]. <<http://units.sla.org/division/dmil/AboutMLD.htm>, <http://units.sla.org/division/dmil/>>.